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을 재발견하다



임 경 수 교수의 라이프롱 디자인

새로운 습관이 생긴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요즘은 당연시되지만 생수를 사서 집안에 쟁여놓는 버릇이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2011년쯤이 확실한 것 같다. 그 당시 구제역이 유행하면서 소와 돼지를 땅 속에 묻는 생매장 살처분이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그 때부터 우리 부부는 물의 출처를 따지기 시작했다. 수원(水源)이 어디인가, 지역의 레테르가 구매의 본질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도 습관은 수그러들지 않고 확장하는 경향이 있다. 배추를 살 때면 해남 배추인가, 괴산배추인가를 들여다본다.

그 사이 노안이 들어 안경을 벗고 수정체를 써서 맞춰가면서도 지역에 대한 습관을 고집한다. 깎이운 금산, 호박은 진주, 배는 나주, 당근은 제주, 양파는 무안을 찾는 습관이 행복이 되었다. 마치 마르셀 프루스트가 습관을 '능숙하면서도 느린 이 조종자는 잠시 머무르는 숙소에서 몇주 동

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다가 우리가 찾아내면 행복해지는 그런 것이다'라고 쓴 것처럼 말이다.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말은 더더욱 오래되지 않았다. 지역을 뜻하는 로컬(local)과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인 크리에이터(creator)가 합성된 형태의 신조어라는 건 금방 유추할 수 있다. 5~6년전 쯤인가 지역 활성화 사업에 나선 정부가 지역가치 창업가를 육성한다고 하면서 실존하게 되었다.

그 사이 드러난 로컬 크리에이터의 면면을 보면 낯설지만은 않다. 제주의 해녀의 부엌, 속초의 칠성조선소, 충주의 단상 사이더, 공주의 마을스테이, 평창의 산너미목장 등은 꽤나 지역의 알레고리가 되었다. 마치 생수를 사는 것이 아니라, 배추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구매하는 것과 같은 버릇이 되었다.

지역가치 창업가는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으로 정의된다. 창업의 질료(質料)가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다. 지역이 배태(胚胎)하는 물질이나 문화를 충분히 섞는

일이다보니 누구보다 상상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푸르스트의 마치 운율을 맞춰야 하는 제약 때문에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시구절을 발견하게 되는 뛰어난 시인들처럼!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질료를 맞춰야 하는 제약 때문에 오히려 가장 구분 짓기 쉬운 지역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지역의 모든 문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 있다. 이는 해결을 위한 도전의 시작점을 제공한다. 모든 대답은 곧장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내어 끊임없는 재발견을 요구한다. 몽테뉴의 말을 빗대자면, 지역은 우리가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향유하며 살아가는 공간이다.

로컬 크리에이터의 삶은 단순히 시장 속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 속에서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다. 지역 속에서 살아가는 로컬 크리에이터는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과 상호작용한다. 결국, 지역은 질문과 대답이 교차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끝없는 실험의 장이다.

/임경수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교수 /성인학습지원센터장

12월31일과 1월1일



김 주 형 (금융부)

12월 31일과 1월 1일은 하루 차이지만 수많은 변화가 발생한다. 개인은 새해 다짐부터 목표를 세우고 단체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기업의 경영전략이 바뀌고 국가 정책도 새롭게 정비된다. 매일 반복해서 지나는 똑같은 하루임에도 1월 1일이 되면 아예 다른 사람, 기업, 국가로 발전하고자 하는 시도가 곳곳에서 크고 작게 일어난다.

지난 12월 31일부터 생명·손해보험 협회를 시작으로 수많은 보험사의 대표가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어떠한 난관에도

결코 굽히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가겠다는 '백절불굴(百折不屈)'의 자세"를 말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세상의 변화에 맞춰 함께 변화한다는 '여세추이(與世推移)' 자세"를 말했고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은 "시장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고객 가치 중심의 비즈니스 혁신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년사에서 지난 한해를 되돌아 본다. 그리고 새해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신년 키워드로 '쇄신'과 '변화'가 항상 꼽히는 이유다.

다만 쇠신이라는 단어에 맞는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본인에게 보이는 문제점은 남들에게 더 쉽게 보이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와

노력은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 위한 과정 보다는 성취, 성과 등 결과가 남을 뿐이다.

12월 31일에서 1월 1일이 되는 날 수많은 사람들이 보신각에 모여 카운트다운을 진행한다. 다시금 새해, 1월 1일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쇠신이라는 의미부터 생각해 봐야 한다.

쇄신과 변화는 지난 한해 동안 언제든 지 당장 시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 변화는 단순히 1월 1일이라는 날짜로 새로운 해가 시작됐다고 해서 쟁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월 1일이라서, 2025년 새해라서, 시무식을 한다고, 신년사를 발표한다고 해서 변화가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가만히 있으면 12월 31일이 지나도 1월 1일은 오지 않고 12월 32일, 33일, 34일에 머물러서 갇혀 있을 테다.

/gh471@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월 7일 (음 12월 8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최선의 해결책은 타협하는 것. 48년생 배우자 외 다른 이에게 눈길을 주지 마라. 60년생 배움에는 나이가 없으니 모르는 것은 공부. 72년생 찾아온 친구가 귀인이 다. 84년생 그물을 치지 않고 고기가 잡히기를 기대하지 마라.



37년생 철들만 하니 또 엉뚱한 일이 생긴다. 49년생 늙은이 형제의 안부와 건강을 챙겨보라. 61년생 가슴이 답답하니 한잔 술이 달래준다. 73년생 지금까지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오후. 85년생 굳은살이 생겨서 아픈 줄도 모르겠다.



38년생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50년생 결과가 좋으면 과정도 좋은 평가를 받는 법이니 정진. 62년생 너무 일이 잘 풀리니 걱정스럽다. 74년생 합작의 협력자를 먼저 구하고 일을 시작. 86년생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를 조심.



39년생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지 못하는 법. 51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면 못할 일이 없다. 63년생 알아도 경험자에게 조언을 구하라. 75년생 하늘이 맑고 푸르니 마음도 상쾌한 날. 87년생 배우자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



40년생 문서 운이 있으니 돼지띠의 도움으로 거래성사. 52년생 거울은 반드시 혼자 못지 않는다. 64년생 엉켜있던 실타래가 풀린다. 76년생 네 살 터울이면 공합도 안본다고 했는데. 88년생 직장에서 좋은 일이 있으니 마음이 흐트러다.



41년생 조금함이 일을 그려칠 수 있으니 매사에 신중. 53년생 새로운 만남을 조심. 65년생 마음이 좌불안석이고 일이 눈에 안 들어온다. 77년생 작약은 여자의 백(百)가지 병을 다스린다. 89년생 기대를 많이 한다면 노력도 그만큼.



42년생 멍석이 깔렸으니 하고 싶은 일을 맘대로 해보라. 54년생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희망을 품자. 66년생 참을만하니 업살을 부리지 마라. 78년생 아름다운 정신을 가진 당신의 승리. 90년생 배우자 탓이 아니라 내 탓이려니



43년생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주니 마음을 다스려라. 55년생 기다리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자. 67년생 한발로 1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는지 해보라. 79년생 결심만 열 번을 넘게 한다. 91년생 재물이 늘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



44년생 천년만년 가는 우정은 없는 걸까. 56년생 한발 물러서 보면 길이 보이게 되니 여유를 가져라. 68년생 김치국부터 마시다가는 냉해 본다. 80년생 연인과의 연인이 다한듯하다. 92년생 배우자 사랑에도 적절함과 균형이 이루어져야.



45년생 일이 하기 싫으니 변명만 보인다. 57년생 부부간의 이별은 다양하고 알 수가 없다. 69년생 비바람 눈 서리를 맞는 것도 인생길이다. 81년생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심정으로 양보. 93년생 최선의 통솔력은 술선수범이라는 사실이니.



46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화로운 하루. 58년생 새로 시작한 일에 실리는 없어도 열심히 하라. 70년생 현실에선 소설처럼 보여도 실제 이야기들이 있다. 82년생 이념 논리 신경 쓰지 말고 업무공부. 94년생 헛된 희망에 비싼 값을 지름.



47년생 2보 전진을 위해 기꺼이 1보 후퇴. 59년생 운이 열렸으니 미뤄둔 일을 마무리 하는 것이 좋겠다. 71년생 길다가 돈을 줌다. 83년생 현상 유지만으로도 박찬 하루. 95년생 어려운 일을 겪는 것도 불운이 아니라 뜻이 있어서 그러할 것.

김상회의四季

귀족의 탄생(1)



신분의 귀천은 있는 것일까? 어느 순간 명예나 기득권을 얻는 순간, 그 이름과 기득권에 의해 더 큰 이익을 갖게 되면서 그 물질과 명예가 세습되고 더 큰 기회의 확장을 보장받는다. 돈이 돈을 벌 듯 한 번 세습된 부와 명예는 입에 풀칠하기에도 급급한 일반 서민들과는 삶의 질이 점점 격차가 커진다. 그러다 점점 그들만의 리그라 할 수 있는 사회가 성립된다. 애초에 신분제도는 그렇게 시작됐을 것이다. 처음부터 귀족인 자는 없었다. 역사적으로도 사냥과 농사가 주된 생존수단이었던 그 시대에는 힘이 센 자가 우두머리였다. 강인한 힘과 체력으로 동물과 싸움이나 다른 부족 간의 전쟁에서 자기 부족을 지키고 많은 사냥감을 확보하는 자가 고기나 재물의 배분에도 우위를 차지했을 것이다. 그렇게 형성된 위계질서에 의해 부족의 우두머리인 부족장이나 추장이 되어 보다 우위적 특권을 지녔을 것이지만 자기 부족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무엇보다 더 큰 의무를 지닌 자여야 했다. 학자들이 추론하기에는 신석기시대 때부터 신분제도는 싹텄을 것이라고 본다. 그 시대에는 주로 제사를 지내며 권력을 가진 제사장, 즉 제정일치가 되는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제사장은 가장 큰 권력과 권한을 가지면서 농민과 같은 일반 생업자들과 지위가 구별되었으며, 일련의 제사의식을 주관하면서 하늘의 뜻을 점치고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도 했다. 그런데 농업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며 빈부의 격차가 쟁겨나 토호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잦은 타 부족이나 씨족과 싸움으로 전사의 신분 또한 탄생하여 드디어 사농공상으로 구별되는 신분계층이 탄생하게 된다. 신분제 사회의 지배층인 사(士)에 해당하는 계층이 대부, 사족, 무사, 선비가 속했고 조선 시대 개념으로는 양반이라고 불리는 계층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파벳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3		1		8	6	7	4	
	8		6					
	4	9	1					6
							8	
6	1	8				9	7	2
	2							
2					7	6	9	
				8			2	
	5	4	9	2		1		7

6			3			4	2	8
3			7	8	4			
8								
	1		4		5		9	2
	5						4	
1	6		8		9		7	
								5
			5	9	1			3
5	7	6			3			9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파벳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QR코드
할인도서

4	9	1	8	2	6	7	9	8
7	2	8	6	9	9	2	1	
8	6	9	2	1	7	9	8	2
8	9	7	1	9	8	2	6	
2	2	6	7	9	8	1	9	
1	8	9	6	8	2	2	9	7
9	8	2	2	1	6	7	9	
6	1	2	9	7	9	8	2	
9	7	2	9	8	2	1	6	8

6	8	2	8	7	1	9	2	9
8	9	2	1	6	9	7	8	2
9	1	8	2	2	9	6	8	7
7	2	9	6	2	8	8	9	1
1	7	9	8	8	2	2	9	6
2	6	8	9	9	7	8	1	2
2	8	1	9	9	6	2	7	8
9	9	6	7	8	2	1	2	8
8	2	7	2	1	8	9	6	9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8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91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